

근로시간면제제도 연착륙 전략과 정책과제

이 성 희*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네 달이 지났다. 올해 하반기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 곳곳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놓고 파업 등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단체교섭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235개 사업장으로 79.5%에 달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협약체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9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 내에서 유급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대 노총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87.3%,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64.2%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협약체결 비율이 낮은 것은 민주노총이 대형사업장이 더 많고, 따라서 전임자 축소 등으로 협약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협약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임자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전임자가 노조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임자를 축소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성격 때문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이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파업발생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노사관계에서 제도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제도변화는 기존 관행에 익숙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usedori@kli.re.kr).

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제도변화는 노사간의 역관계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쪽의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노사관계 제도변화는 변화시키려는 목적함수뿐만 아니라 제도변화 비용도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사관계 제도변화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맞게 노사관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중요할 수 있다. 노사관계 제도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개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같은 제도개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제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에 맞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관계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노조활동 질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다양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사례들을 소개해서 새롭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노사 당사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의 창의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천개가 넘는 정도라면 그 중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사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면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데 소모적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KLI**